

46. 조선소 도장공에서 발생한 횡단성 척수염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도장공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이○○은 2001년 5월 선박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 입사하여 3년간 선박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8월 대학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24세 때인 2001년 5월에 도장보조공으로 입사하여 파이프 선별과 도장교반작업을 병행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는 도장교반작업과 분무도장을 병행하였다. 근무시간은 보통 8-9시간이며, 작업 중 마스크와 두건, 보안경 및 피스복을 착용하였다. 선박도장작업 중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톨루엔, 크실렌, 페놀, 이소부탄올, 부틸셀로솔브 등 다양한 유기용제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더워서 작업 중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기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평소 당뇨, 결핵, 고혈압이 없었고, 2001년에서 2004년 동안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4년 8월 내원 당시, 내원 6일 전 전어회를 먹은 뒤 구토, 열감 등이 있다가, 4일 전부터 사지의 저린 감각과 허약감이 발생하고 증상이 진행되다 보행장애, 배변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횡단성척수염의 병변부위는 경추 5번에서 흉추3번과 2번 사이로 나타났으며, 뇌척수액 검사 소견상 적혈구, 백혈구 등이 증가되어 척수염 및 뇌염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독되었다. 2004년 8월에 시행한 뇌자기공명검사 결과에서는 뇌에 국소병변이나 부종 및 위축, 이상 조영증강 등이 없이 정상이었다. 2004년 11월 16일 촬영한 자기공명촬영 추적검사에서 횡단성척수염이 호전된 소견을 보인다고 하였다.

4. 고찰: 현재까지 횡단성척수염은 환경성 또는 직업성 위험요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감염이 선행되거나 자가면역성 기전으로 이해되는 질환이며, 따라서 이○○의 횡단성척수염이 업무 중 노출된 유기용제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5. 결론: 근로자 이○○의 횡단성척수염은

- ① 선박 도장 작업 중 다양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지만,
- ② 현재까지 횡단성척수염은 화학물질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고,
- ③ 병력 및 뇌척수액 검사 소견상 발병원인으로 감염성 척수염 및 뇌염이 의심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